

광주기독병원, 3년 연속 임단협 자율 잠정 합의

노사 “양보와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 문화 확고히 다져갈 것” 전국 103개 보건의료사업장 쟁의조정 신청 속 모범사례 제시

전국 보건의료산업 현장이 인력 확충과 임금 인상 등을 둘러싸고 대규모 파업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광주기독병원(병원장 이승욱) 노사가 정부의 강제 조정 절차 없이 3년 연속 임금 및 단체협약을 자율적으로 잠정 합의를 이루며 협력적 노사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기독병원 노사는 2026년도 임단협 안을 도출하기 위해 총 7차례에 걸친 본 교섭과 수차례의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노사 양측은 대립 대신 끊임없는 소통과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으며, 마침내 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이로써 광주기독

병원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정부 조정 없는 임단협 자율 타결이라는 성과를 이룩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잠정합의는 최근 보건의료산업 노조가 직면한 국내 상황과 비교했을 때 더욱 이해적이고 값진 성과로 평가받는다. 현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신하 9개 지부, 103개 보건의료 사업장은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전국적인 의료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광주기독병원 노사는 지역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의를 이어가며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광주기독병원 노사 관계자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지만, 서로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한 걸음씩 양보한 끝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상호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지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주최 이박 행 목사
미션리 주필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대표
건강교회와사회도량 상임대표
광주YMC A선위원장



전당대회는 민생을 위한 선의의 경쟁이어야 한다.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전당대회는 단순히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정치행사가 아니다. 집권세력이 앞으로 어떤 비전으로 국정을 이끌어 갈 것인지 국민 앞에 약속하는 자리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 경쟁의 무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기대와는 적지 않은 거리가 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고물가와 경기침체는 시민의 삶을 압박하고, 자영업자는 폐업과 부채의 이중고를 견디고 있다. 청년들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야 한다. 종북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 없이 정치적 대립의 소재로만 소비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치르는 기술보다 선거 이후의 책임으로 평가받는다. 전당대회 역시 누가 승리했는보다 어떤 정책을 제시했고, 어떤 책임을 약속했는가가 더 중요하다. 집권 여당이라면 더욱 그렇다. 국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만큼 상대를 공격하는 경쟁이 아니라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경

정책은 실종되고 권력만 남았는가

은 일지라와 주거 문제 속에서 미래를 설계하기 어려워하고, 저출생과 고령화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지방소멸과 지역 불균형, 의료와 물품의 공백,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도 이렇듯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지금 국민이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서로를 향한 ‘날 선 공방’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해법이다.

하지만 전당대회를 둘러싼 정치권의 관심은 정책보다 권력 구도에 쏠려 있는 듯하다. 경제와 민생을 살릴 비전 경쟁보다는 ‘적자(嫡子) 논쟁’과 계파 갈등, 정치적 유희를 따지는 발언들이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누가 누구의 계승자인지, 어느 계파가 우위를 점하는지가 주요 뉴스가 되는 동안 정작 국민의 삶은 정치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행사자 법제도는 어느 정파의 이해관계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중성 경쟁이 아니라 정책 경쟁이다. 계파를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앞세우는 정치이며, 상대를 이기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살리는 정치이다. 경제를 회복하고 지역을 살리며,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전당대회의 중심에 서야 한다. 그것이 집권정당의 책임이며, 국민이 기대하는 정치의 모습이다.

정치는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 아니라 국민을 섬기기 위한 공적 책임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그 권력의 목적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있다. 민생이 어려울수록 정치는 더욱 낮은 곳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번 전당대회가 계파와 적자 논쟁으로 기억되는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 미래를 위한 정책과 비전이 경쟁한 성숙한 민주주의의 장으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오늘의 국민이 정치에 보내는 가장 절실한 요구일 것이다.

외무부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필리핀 다바오에 13번째 예배당 헌당식

장흥읍교회 박대순 안수집사 섬김으로 이뤄져 광주온평교회, 민다나오 지진 피해 교회도 돌아와

광주온평교회(담임목사 김병택)는 광주온평교회(담임목사 김병택)와 함께 협력하여 필리핀 다바오(장지원 선교사)에서 13번째 예배당 헌당식을 가졌다.

이번 13번째 예배당은 장흥읍교회 박대순 안수집사의 섬김으로 이뤄졌다.

광주온평교회와 광주온평교회는 지난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4박 5일간의 선교일정 가운데 가운데, 민다나오 지역에 지난 6월 8일 있었던 진도 7.8의 강진으로 파괴된 101개 교회 중 4곳을 돌아보고, 건축중인 선교센터와 신학교를 찾아 사역을 섬겼다.

다바오지역을 22번째 섬기고 있는

장지원 선교사는, 광주온평교회 등 선교에 달란트가 있는 몇몇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서 명령하신 예배당 개척의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131개체의 교회당을 헌당했으며 현재 7개체 교회가 지어지고 있다.

장 선교사는 지금까지 선교센터와 선교사관이 없이 일제로 생활했는데, 여성 분의 선교동역자의 합심으로 지상 2층의 G.D.G.(은혜의 동산) 미션 센터가 지어지고 있어 센터가 완공되면 그곳에서 지내며 사역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미션센터 헌당은 10월 5일로 예정되어 있다.

광주온평교회 김병택 목사는 “필리핀에 예배당을 세우는 일은 늘 주



필리핀 다바오지역에서 13번째 예배당 헌당식을 갖고 선교동역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님께서 준비된 자들을 통해 일하셨음을 늘 고백한다”며 “새워진 예배당에 음향(앰프, 스피커, 마이크), 악기(드럼, 건반, 기타, 베이스기타) 등을 섬겨주신 분들도 많았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지금까지 예배당 헌당

시 미션2에서 소식을 알려주셔서, 애독자들의 참여로 131개 교회당이 헌당되는데 한 축을 담당해주셔서 늘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다”며 “이번 지진 피해를 당한 4개체에도 선교동역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초저출생·초고령화 위기 대응”

한국행정학회, 부산한국제전시컨벤션센터 국제학술대회

한국행정학회(회장 서시경 교수)는 6월 23~25일 부산한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국민을 위한 행정, 미래를 여는 행정학: 기술, 성장, 균형 그리고 행정”을 주제로 하계 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ASSET 최영출 석좌교수(AI 한국비교

정부학회)의 사회로 진행된 ‘인구감소지역의 초저출생·초고령화 위기 대응’ 분과에서는 장현일 원장(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신현대학교 최예스디 교수(KBS연구소장, 인본도시사업단장)가 발제한 ‘불합류불복사태’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불복모델’



부산한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행정, 미래를 여는 행정학: 기술, 성장, 균형 그리고 행정’ 주제 하계 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발제자들과 집행부가 한자리에 모였다

에서 “지역사회 통합불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관계망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종교시설을 활용해 도시형, 농촌형, 농촌형 모델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과 긴밀하게 연결된 생활공동체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대학교 이정은 교수와 건국대학교 이상열 교수(전대외부총장)은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afety by Design in Community Integrated Care’ 발제에서 “디지털 안전망은 위험 조기발견, 건강행동 관리, 불복 공백 보완, 응급상황 대응, 재가생활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노인의 주거공간에 센서, 카메라, 음성기, 활동감지 장치가 설치되는 경우 신체적 안전뿐 아니라 정서적 안전, 사회적 안전, 프라

이버시 안전, 불복 연속성 안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북대학교 주상원 교수(사회과학대학장)는 “지방정부 인구 정책 전환과 정책적 합의” 발제에서 지난 10년간 약 14만 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대부분의 시·군이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인구가 증가한 원주군 김제시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러한 지방정부에서 일로 기타취슈대 신동은 교수는 “청년이 접할 수 있는 것과 실제로 결혼·출산하고, 지역에 생활 기반을 형성하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 단계적인 유입 성과를 넘어 장기적인 인구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후속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통합불복에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통합시스템, 디지털 안전망(특히, 디지털 시스템의 오작동, 데이터 오류, 프라이버시 침해, 디지털 격차)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미션리 구독 및 광고 문의

T. 062)367-9109 F. 062)367-9108

농어촌·미자립교회, 군·경 선교 및 기독교 선교기관에

미션리 신문을 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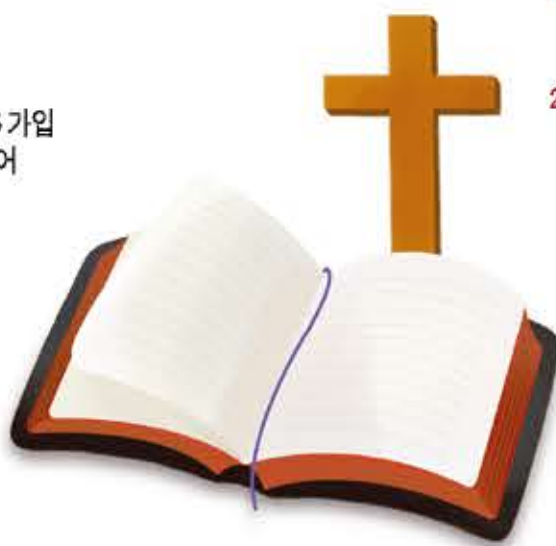
“발은 크리스토를 닮은 세상”을 추구하는 미션리 21이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각 선교단체, 군부대, 교도소, 소년원 등에 신문 보내기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지역복음화와 크리스천 문화 창달을 위해 복음과 함께 교회의 소식을 담아 발행되는 미션리 21 신문보내기 운동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2025년 7월 중간 26주년을 맞은 미션리 21이 이제 문서선교의 보다 넓은 영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QMS에 가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부 월 5,000원, 1년 50,000원)

1 정기 후원: CMS 가입

- 미션리 21 홈페이지(mis21.net)에서 CMS 가입
- CMS 신청서 작성 후 발송부대에 넣어 신문사로 우송
- ※신문사로 연락주시면 발송부대가 들어있는 CMS신청서를 지킴으로 보내 드립니다

2 일시 후원: 계좌이체

- 농 협: 301-0090-0060-71
- 예금주: (유)미션리21



후원(구독)해 주시는 분들

80부: 리종현목사광주별엔

20부: 김승원목사신원교회 김봉규이사장나사렛요양병원 김사라목사부른솔 김요한목사원광 김용민목사아시아침례 김명팔목사원연교회 남택물목사유일 김종기목사빛과사랑 문화성목사한빛성결 박혜영목사동서남북 박병철목사봉암침례교회 박지옥목사부순수안영 신은수목사열린교회 윤성목사문충교회 이현영목사새날교회 이근배목사빛과사랑 임종갑목사세종교회 임준태목사하남 조규성목사서광교회 최용남목사한정교회 최정열목사광주소망 한성영목사성대

10부: 김민복목사순복음무등 변희석목사열린침례 박혜성목사거성 이원재목사시광의빛 정순희목사보안목사백학목

6부: 김대훈목사세일교회 김경배목사성일교회

4부: 고석원목사세일교회 김문선목사도산 나모람여수수출 박상현장로광주별엔 박현환장로에정동합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오대환목사대성교회

2부: 공성택목사성명 박해자재일중앙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 광주노회예정동합 김선화 김순영 김양남 김영갑목사신안 김오자장로모자이크별엔 김전진목사광주별엔 김홍목사성명 김중은목사그린텍 대표

나성현목사빛과사랑 민족복음화운동본부광주연수원 박수현목사광주별엔 박연진목사광주별엔 박용수목사광주별엔 배복남목사광주별엔

서정현목사기독교문서선교회 서순자목사행복집사광주 오경복목사대성

윤석민목사광주별엔 윤정현목사광주별엔 이경아목사복음사(하남) 이연옥목사신원교회 이해정목사광주별엔 임영혜목사문정수장로광주별엔

장신장로광주별엔 정종민목사문정수장로광주별엔 조순목사복학 박조점목사모광산 차은호

1부: 강영숙목사광주강정수목사광산 강정숙목사광산 고정근목사광산 공경집사광산 국성목사광주별엔

기영목사(예수성명) 김경희목사(김영갑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문현목사(예수성명) 김복기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김승수목사(예수성명)

※성명 기재하심

※성명 기재하심